



“여행을 떠나요~?” “저 푸른 초원위에~” “나는 낭만 고양이~?”

아직도 귀가에 맴돌고 있는 ‘달리는 노래방’에서의 환호가 들린다.

24일, 하루의 피로가 어깨를 누르는 시간인 오후 6시 30분에 버스에 올라 긴 방죽을 지나 안면도에 도착한 10시경까지 광주센타 식구들은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주파수가 정확한 라디오처럼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다. 가끔씩 술잔을 높이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도 들렸고 “이번 추계 야유회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 하나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박상용 국장의 당부도 있었다. 그 사이 터질 것 같은 생리(?)욕구를 참지 못한 몇몇 직원들의 호출로 버스를 잠시 멈춰 선 것을 빼고는 버스는 밀물처럼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향해 노래를 싣고 달렸다.

10시, 숙소에 도착해 짐을 던져놓고 노래에 지친 목을 풀어주듯 시원한 꽃계탕을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였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다 하지 못한 얘기 보따리를 푸느라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가을이 전하는 노래, 안면도 꽃지~

광주센타 추계 야유회

25일, 신선한 공기가 이마와 손을 감싸면서 또렷하게 느껴지는 아침이다. 누군가 아침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초저녁이라고 느껴지는 분위기이다. 태양이 바닷물을 쏘아 밀며 불끈 솟아올라 하늘에 부

리부리하게 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붉은 빛을 머금고 등대불빛처럼 서있고 갈매기도 날개를 접은 채 종종 걸음으로 갯벌을 쏟다닌다. 그리고 저 멀리 꽃지해수욕장 지킴이처럼 서있는 할미바위, 할아버바위가 무릎을 맞대고 저 멀리 수평선 끝으로 출항량 친 바다를 향해 ‘어이~오라고’ 부르고 있다.

8시 30분, 어린 돌게나 빨게가 동





글똥글하게 깨워낸 뿔발, 아침을 힘차게 깨우는 소리가 있다. 바로 '광주의 소리', 광주센타 식구들의 함성 소리이다. 전날의 숙취로 몸 상태는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투명한 꽃잎처럼 맑은 하늘을 닮아있다.

다함께 하는 첫 번째 체육대회 종목은 피구,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치고 줄 밖에 빙 둘러 서서 공으로 상대 팀을 맞춰 잡는다. 이긴 팀에게 주어지는 경품으로 발표한 건 뽕뽕한 배추잎, 현찰이다. 그리고 보니 어제 '달리는 노래방'에서 최고의 점수와 최상의 분위기를 만든 가수(?)에게도 주어진 건 현찰이었다. 현실적이라는 느낌이다.

한번씩 들어가고 나가기를 끝내고 다음은 박국장의 즉석 제안으로 과장급 이상 직원은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은 밖에서 공을 던져 아웃(?)시키는 깜짝 이벤트를 연출했다. 약간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흥겨움이 절로 나는 시간이었다. 다음 종목은 '공동체놀이'. 드디어 전날부터 궁금해 하던 네모난 강통과 공사장에서 쓰는 긴 쇠파이프의 용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한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사람은 길을 인도하는, 서로의 믿음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 수 있는 놀이이다. 정말로 똑바로 걸어서 강통을 정확하게 때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방향으로 사정없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의 불일치가 지금 '공동체놀이'에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 주지만 현실에서도 즐겁게 해줄까?

마지막으로 할미바위, 할아버지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끝내고 커피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동안 백사장을 한가롭게 거닐며 짧은 시간 함께한 꽃지해수욕장에 인사를 고했다.

다음 목적지는 고창 선운사. 노래를 싣고 달리는 관광버스는 여전하다. 버스가 흔들고 가는 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

지금 떨어지는 저 낙엽이 생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새순을 싹트게 하는 영양분이듯 이번 추계 야유회가 광주센타의 2003년을 잘 마감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으면 한다. **한민**

